

하나은행, 호남대·광산구와 주민 공간 조성 협약



하나은행(행장 이승열)이 지난 19일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와 'Hana EZ Lounge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내년 7월 하나은행 광산지점에 개관을 목표로 하는 'Hana EZ Lounge'는 광산구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ESG 경영 국

내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Hana EZ Lounge'에는 고려인 등 이주민의 정주지원과 커뮤니티가 될 '글로벌 허브센터', K-푸드를 활용한 식생활 교육을 제공하는 'H&N 센터', 디지털 교육과 이스포츠클ubs를 즐길 수 있는 'e음센터', 강의실 등이 들어선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 반찬·선물 나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관리처는 최근 '더 따뜻한 겨울나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더 따뜻한 겨울나기'는 한국수자원공사 창립 57주년을 기념한 나눔활동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인애종합복지관을 찾아 반찬을 후

원하고 관내 독거노인 등 지역 내 소외계층에 배달했으며 신애원을 방문해 직접 포장한 140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이혜승 영·섬유역관리처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따뜻함을 나누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 두번째 동시집 '아가의 꿈' 출간

강상구(사진)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이 공직생활 중 틈틈이 작성한 시들을 모아 동시집을 냈다. 일상에서 찾은 풍경을 시적인 상황으로 확장하고 사물에 감정을 이입해 동시화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강 국장이 최근 펴낸 두번째 동시집 '아가의 꿈'은 일상 속 이야기가 담겼다. 후수의 오리를/겨울비 우산 속/딱따구리/뻘꾸기/진달래꽃/철쭉 등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청 뒤 오룡산을 오르며 마주친 동네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로 읊었다. 공직 생활 과정에서 접한 신안 천사 섬, 바람소리, 대나무 숲 등 전남지역 천혜의 풍광에 대한 느낌을 풀어낸 동시도 엿 보인다. 한 달에 한 편 가량 안부를 물으며 지인들에게 전해온 시 가운데 일부를 추려 엮어냈다. 그는 시를 쓰는 과정을 "삶의 애환은 언어로 지라났고 막강의 세계 저편에 숨어있던 기억은 다시 소환되어 생생하게 다가왔다"고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 18일 여수에서 전남도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성과보고회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의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며, 사업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파견복지사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강성취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공백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광주새마을금고, 복지사각지대 이웃에 쌀 기탁



동광주새마을금고는 지난 20일 MG회관나눔 '사랑의 줌도리운동' 쌀 전달식을 갖고 복지사각지대 이웃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사진) 행사에서는 2개월간 모금운동을 진행해 모은 총 9000kg(450가마)의 쌀을 전달했다. 동

광주새마을금고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3만1700kg의 쌀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 해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서부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연합회

박종철 11대 회장 선출



박종철(두레청과 117호·사진)씨가 최근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제11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의 7개 중도매인 조합이 각 조합당 5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35명의 대의원이 직접 선거로 선출했다. 신임 박 회장은 "광주시와 4개의 도매시장법인 간의 제도 시행 및 정책 조율과 각종 현안문제 토의, 중도매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농협중앙회 광주공판장·두레청과(주)·호남청과(주)·수협 등 4개 법인과 37개 조합으로 구성됐다. 중도매인 600여 명을 비롯해 3000여 명의 유통종사자들이 일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친절한 선주씨(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930	30 신데렐라 게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국회 인사청문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30 잘 먹고 잘사는 법 플러스
[11]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살피는 남자들(재)		00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2]	00 KBS 뉴스 12	40 영화가 좋다(재)	25 헬로키즈 TV생물도감(재)	10 SBS 12뉴스 3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	00 네트워크 공돌이 문화스케치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보보보 좋아 좋아 55 2시 뉴스 외전	00 내모세모 55 닥터 365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나라는 가수 인 독일 핫클럽 30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내 비밀친구 쌤(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TV 유치원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재선에너지가 희망이다 햇빛과 바람의 땅, 남도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꼭 쉬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도시락(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신데렐라 게임	05 친절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꽁아	30 동물은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세차JANG	00 전자적 참견 시스템 스페셜	00 시사타치! 때때때때 35 시장의 폭력 스페셜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00 히어로 액션 시리즈 무빙	05 닥터 365 10 동상이몽2 내 내 운명
[11]	35 동네 한 바퀴(재)	05 스모킹 건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30 우리 집 금송아지(재)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스포츠 매거진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30 교육대기획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19:20 고향민국
07:00 애교와 친구들 수리수리 넘버랜드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왔다 내 손주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슈퍼월스 일렉트릭 히어로즈	14:30 특별기획 - 한국의 전통문화를 말하다	<완전 정복! 이탈리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07:45 메탈카트봇 S강철의 귀환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1:35 한국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	15:55 블록S	<디스 이즈 코리아2 1부 맛있는, 원주>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6:10 당동당 유치원(재)	21:55 PD로그
08:3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6:30 페퍼 피그	22:45 EBS 다큐프라임
08:50 레인보우 버블럼	16:40 마사와 곰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자이언트 펭TV	16:55 슈퍼월스 일렉트릭 히어로즈(재)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9:40 PD로그	17:10 명탐정 피트4	24:40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재)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3일 (음 11월 23일 辛酉)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술선수범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다. 48년생 일반적인 보편성과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60년생 감각이 둔해지면 서자구 실수를 반복하는 형상이다. 72년생 행로를 좌우할 만큼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날이다. 84년생 방도를 세우지 않으면 궁지에 몰릴 수 있다. 96년생 결정되었다면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8, 96</p>	<p>午</p> <p>42년생 얼마나 오래 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이다. 54년생 우회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 착실하게 임하라. 66년생 당장의 이득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길경으로 이어질 것이다. 78년생 나중으로 미룬다면 불가능해져 수박에 없다. 90년생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이다. 02년생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42, 57</p>
<p>丑</p> <p>37년생 한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 하자. 49년생 정성과 속수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리라. 61년생 모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73년생 과거의 관계들이 소중함 법이니 이익을 떠나서 정성껏 배려하는 것이 도리이다. 85년생 결심일부터 치우고 벌 일이다. 97년생 확립적이라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29, 98</p>	<p>未</p> <p>43년생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55년생 모든 것을 차치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야 할 판세이다. 67년생 언행을 가려서 대담히 후회하지 않으리라. 79년생 현재는 미미하지만 미래는 천양지차가 되리라. 91년생 공공해 왔던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된다. 03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재를 파악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8, 83</p>
<p>寅</p> <p>38년생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생산적이다. 50년생 향후의 달성보다 현재의 유지에 신경 쓸 때다. 62년생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낫다. 74년생 한 톨포만 늦추면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다. 86년생 원래부터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98년생 핵심 사항을 간과한다면 실가 이끄는 요인을 만든다. 행운의 숫자 : 31, 85</p>	<p>申</p> <p>44년생 크게 활용될 때가 있을 것이니 잘 두어라. 56년생 특별히 꼭 집어서 강조해 둘 필요가 있느니라. 68년생 힘들인 만큼 비례하여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80년생 예상 밖이어서 대단히 실망하는 판도이다. 92년생 정리 정돈을 잘 해야 손해가 없을 것이다. 04년생 지혜가 많은 이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3, 88</p>
<p>卯</p> <p>39년생 지나치다 보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51년생 형식도 중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63년생 형식적인 면은 멀리하고 실질적인 점을 우선해야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75년생 예비부의 확보가 꼭 필요한 판세에 놓여 있다. 87년생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 99년생 믿고 추진해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었다. 행운의 숫자 : 49, 81</p>	<p>酉</p> <p>45년생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57년생 원칙대로 준수해야 할 때가 되었다. 69년생 가장 편리하고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 81년생 드디어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 93년생 본수를 지키려면 흥사를 비켜 갈 수 있다. 05년생 양자 사이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15, 53</p>
<p>辰</p> <p>40년생 인과응보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으리라. 52년생 반복적인 동세의 연속이므로 새로운 것이 없도다. 64년생 취약점이 보이거든 망설이거나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76년생 혼자 조처함이 제일 속 편할 것이다. 88년생 근소한 차이가 천지간이 될 것이다. 00년생 방법을 충동원해야 할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47, 67</p>	<p>戌</p> <p>46년생 여러 사람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만하다. 58년생 기존의 형식이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어야 한다. 70년생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라. 82년생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 94년생 상대적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06년생 행운이 따르는 길정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1, 86</p>
<p>巳</p> <p>41년생 현상 유지만 하여도 선명한 것이다. 53년생 복잡한 것 같지만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있음을 파악할 수도 있다. 65년생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떠 있는 형상이다. 77년생 새로운 것들을 접하다 보면 전망이 밝아진다. 89년생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01년생 이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21, 74</p>	<p>亥</p> <p>35년생 상대가 원하는 바에 따라야 의미가 있느니라. 47년생 단순한 형태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9년생 기본적인 입장부터 제대로 정리해야겠다. 71년생 주된 것을 위주로 이끌어 간다면 타개할 수도 있다. 83년생 기쁨은 한 순간일 뿐인데 아쉬움은 많이 남으리라. 95년생 단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6, 55</p>